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임준홍 책임연구원 · 김양중 책임연구원 · 송두범 연구위원
(충남발전연구원 공간계획연구부)

목 차

< 요약 >

- I.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동향
- II.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주요내용
- III. 국내외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례
- IV.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 V. 결론 및 정책제언

《요 약》

- 충남도는 지난 8월 19일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였고, 11월 1일에는 17개의 ‘충남형 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으며 2014년까지 200개를 추가로 지정·육성할 계획이다.
- 이와 시점을 같이하여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가칭)충남형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 ‘충남형 사회적기업’의 올바른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행정(공무원)의 조사·연구, 경영·컨설팅에 대한 교육,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새로운 민관협력기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 구체적인 ‘충남형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의 역할과 설립방안, 향후 운영방안 및 각 주체들의 역할 등에 대해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중간지원기관은 자금조달과 사업전반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 판로개척 등의 코디네이터 역할과 기업체 운영과 관련된 재무, 회계, 법률 등의 전문경영지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중간지원기관은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영세하거나 전문적 경영지식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중간지원기관의 설립방법은 기존조직을 활용하는 방법, 지방정부인 충남도나 일선 시·군에 두는 방법, 시민단체에 두는 방법, 중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나 연구기관 등에 두는 방법 등 다양하나, 중간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 향후 충남도의 정책 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단기, 중·장기 전략으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 단기적으로는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충남도 차원에서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군 단위로 설립을 유도하여 지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이다.
- 초기에는 행정의 위탁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간지원기관을 하나의 사회적기업(커뮤니티 비즈니스)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아울러 중간지원기관이 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조가 이를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 행정은 중간지원기관에 대해 사회적기업 관련 홍보, 교육, 기초조사, 컨설팅 등의 기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 민간 기업은 사업 및 경영 노하우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능력을 제고시키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주요한 수요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대학은 연구설비나 우수인력 등을 제공하고, 언론기관은 매체를 통해 중간지원기관의 다양한 활동을 홍보한다. 홍보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중간지원기관의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미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해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확대·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 사업자는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발적·능동적 활용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상호 우선구매 등의 노력을 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단순히 충남형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과 구조를 넘어 커뮤니티 비즈니스, 로컬푸드, 지역(마을)만들기를 포함한 지역의 순환(경제)구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 왜냐하면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만들기 등은 모두 지역 순환의 관점에서 함께 접근해야 지역의 문제를 효과적·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두 커뮤니티 차원의 지역(마을)만들기와 연계될 때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고, 그 효과가 지역민에게 직접 전달되어 지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며, 궁극적으로 지역민이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I.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동향

-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본격적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참여정부 시기 노동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일자리 TF팀’을 구성하면서 부터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2007)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2008)하여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각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특히, 이명박 정부는 지난 6월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을 발표함으로써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리고 6.28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주요 고용정책으로 여러 후보자들이 사회적기업 육성을 제시함으로써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실제 최근에는 서울, 전북, 경북 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지역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 최근에는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서도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점차 확대·다양화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11년까지 232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다.
 - 지식경제부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시범사업단(단장 김재현; 건국대 환경과학과 교수)을 통해 전국에 10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1>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정책사업 현황

사업명	관련부처	주요 사업내용	특징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노동부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사회적 기업 인증제 도입 - 2010년 현재 268개 사회적 기업 인증, 각종 경영·재정·홍보사업지원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초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행정안전부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근로사업의 후속조치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병행 추진 	- 일자리 창출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병행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	농수산식품부 (2011년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농촌조직 진출의 한계 극복 	-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초점 (지역성과 수익성 강조)
기 타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혁신센터 내 커뮤니티 비즈니스 네트워크 기능강화에 초점을 맞춘 시범사업(지식경제부) - 노동부와 MOU를 통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 육성(문화관광부) 	- 지식경제부는 시범사업, 문화관광부는 고용노동부와 MOU체결 통해 추진

* 자료 : 지경배, 2010.9,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정책브리프 제80호, 강원발전연구원

- 한편, 2010년 7월 현재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활동 중인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수는 355개이며, 이중 충남의 사회적기업은 6개(예비사회적기업 18개)에 불과할 정도로 양적으로 부족하고 실적 또한 저조하다. 지역적으로도 편중(천안, 공주, 아산, 연기, 금산 등)되어 있으며, 사업분야 역시 복지, 환경 등에 한정되어 있다. 기업규모도 영세(기업당 평균근로자수 15.8명)하고, 영업수익보다 인건비 지원 등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수익성 또한 취약한 실정이다.

- 아직까지는 국가적으로나 충남도 모두 사회적기업수가 부족하고 역할도 미흡하지만 선진국에서 사회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그리고 최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높은 관심과 열정으로 볼 때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기업 비중과 역할, 활동 분야는 점점 커지고,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2> 유럽 각국 사회적 기업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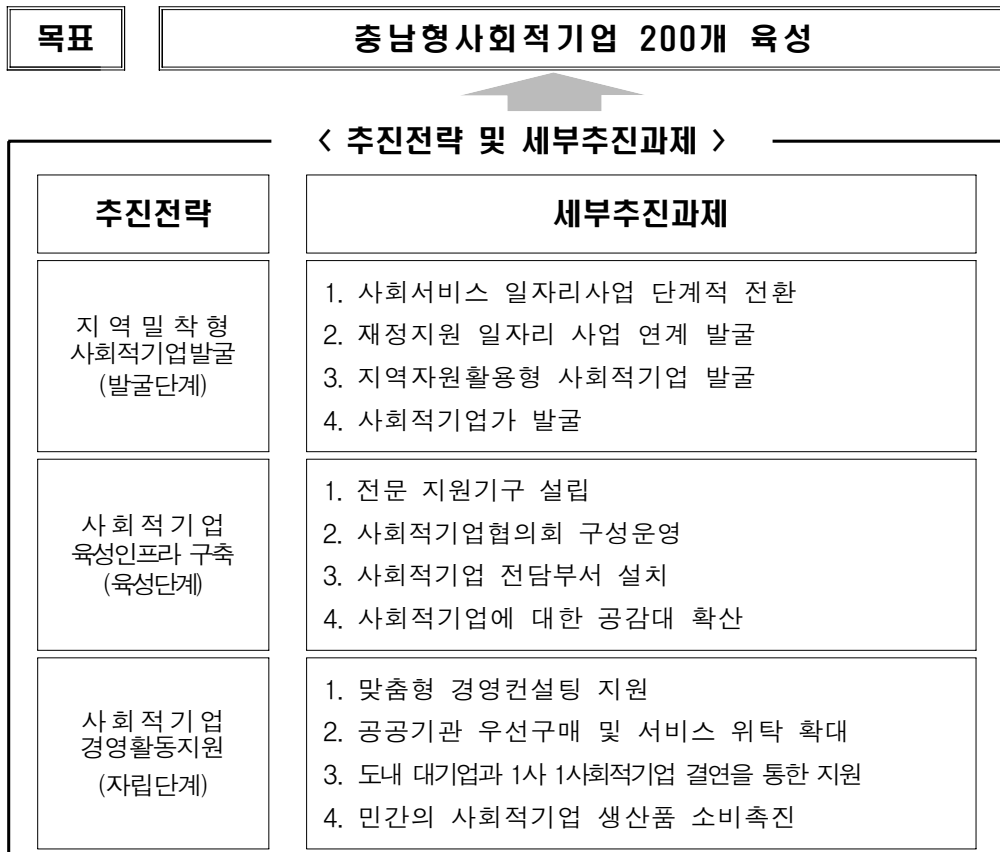
구분	영국('06)	이탈리아('04)	프랑스('07)	폴란드('05)
기업수(개)	약 55,000	약 11,000	약 8,400	약 52,000
고용 (15세 이상 인구)	5.0%	5.2%	7.0%	4.6%
총 매출의 GDP 비중	2.0%	1.4%	-	-

* 자료 : 홍석빈,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원, 2009.5.6

II.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주요내용

1. 주요내용

- 충남도는 민선5기 도지사 공약과 연계하여 올해부터 2014년까지 ‘충남형 사회적기업(충남도 조례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기업) 200개 육성’을 고용과 빈곤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그림 1> ‘충남형 사회적기업’의 육성목표와 추진전략

- 충남도는 정책수립과정에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워크숍,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인증절차 간소화, 지원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직접 수립하였다.¹⁾
-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자립 단계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기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벽이 너무 높고, 신규기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 등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의 7가지 인증 조건²⁾ 중 3가지(조직, 사회적 목적 실현, 정관 또는 규약)로 간소화해 사회적기업 참여를 희망하는 NGO, 비영리단체 등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충남형 사회적기업’은 매년 2회(1월, 7월) 공모하고 사회적기업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와 육성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정된다. 지정된 기업은 1년간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관리 및 전문인력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 개발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그 성과에 따라 심사를 통해 1년간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 인건비의 경우 1인당 63만원씩 최대 10명까지, 전문인력의 경우 1명에 한해 최대 월 150만원이 각각 지원되며, 사업개발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된다. 또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고용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집중적인 경영컨설팅도 병행한다.

1) 충청남도,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계획(2010) 참조

2)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조건은 ①조직형태, ②정관이나 규약, ③사회목적 실현, ④유급근로자 고용, ⑤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⑥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⑦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임(구체적 내용은 붙임자료 1참조)

<표 3> ‘충남형 사회적기업’의 주요 지원내용

구분		고용노동부 지원	충남형 사회적기업
인건비	일반직원	· 월 90만원/인 (100명)	· 월 63만원/인 (10명)
	전문인력	· 월 150만원/인(3명)	· 월 150만원(근로자 10명당 1명) ※ 기업당 최대 2 명
시설비용자		· 2억원(연리2%)	· 최고 3천만원(연리 2%) ※ 무담보 신용보증 및 이자보전
사회보험료		· 4년 이내	· 2년 이내
경영컨설팅		· 컨설팅비용 지원 · 연 1천만원 (예비기업 3백만원)	·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인력pool 활용 · 해당분야 전문가 직접시행
사업개발비		· 기업당 최대 7천만원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도비50%, 시군비 50%)
세제지원		· 법인세, 소득세 50%(4년)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50%감면(2년)
지원기간		· 재정 2년, 경영 3년	· 재정 1년, 경영 2년 ※ 심사를 통해 1년 연장가능

○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저변확대를 위해 은퇴한 기업가, 자본가, 대학생,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창업 수요 조사 후 사회적기업 창업과정 교육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기업가도 양성할 계획이다.

○ 그리고 충청남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기업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회 공헌활동 등 참여의향을 조사해 올해 안에 기업의 대표와 도지사가 기업의 사회공헌 협력 MOU를 체결하고, 1사 1사회적기업 결연도 추진한다.

2. 특징

- 충남도에서 제시한 ‘충남형 사회적기업’ 정책은 정책 수혜 대상이 도민 중심이라는 점, 정책의 수립과정과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지금까지 지방정부에서 추진한 타 정책과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 첫째, 기존의 많은 지방정부 정책이 대규모 개발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충남도민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점에서 도민친화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둘째, 수립과정 측면에서 행정이 중심이 되어 전문가와 충남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행정 스스로 자발적인 정책 수립을 하였다는 점이다. 실제 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부족한 전문성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대한 보완하고, 예산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계획의 실천력을 높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셋째, 계획의 내용에 있어서도 기업발굴, ‘충남형 사회적기업’의 지정, 각종 지원방안,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해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이고, 실천력을 담보하고 있다.

<표 4> ‘충남형 사회적기업’의 단계별 육성계획

(1단계) 초기단계	(2단계) 육성단계	(3단계) 자립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모델 발굴 ○ 충남형사회적기업 지정 ○ 사회적기업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거버넌스 체계구축 ○ 지원체계 정비 ○ 사회적기업 인식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기반 확충지원 ○ 수익창출모델 확산 ○ 일자리, 서비스 선순환 구조 정착

- 특히,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의 첫걸음인 기업발굴에서는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각 실국원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범 실국차원에서 협동하는 체계를 제안한 점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Ⅲ. 국내외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례

1. 국외

-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사회적기업과 행정주도로 추진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뚜렷이 구분될 수 있지만 외국의 경우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구분없이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 활성화 요인 실태 조사-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관한 조사(경제산업성, 평성20년)’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중간지원기관의 비즈니스모델에 관한 조사보고서(관동경제산업국, 평성21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배경

-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기관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다양하다. 영국은 협동조합이나 자선(기부)에 관한 긴 역사에 따라 SEL(Social Enterprise London)은 원래 협동조합을 지원했지만 현재는 그 범위를 사회적기업 전체로 확대하였다. SEC(Social Enterprise Coalition)는 사회적기업에 관한 여러 가지 단체나 지원 조직을 연결하는 조직으로서 발전하고 있다.
- 이탈리아는 협동조합이 발달하였고, 이들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을 위해 지역 수준, 정부수준의 중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여러 재단의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2) 개요

- 영국은 Social Enterprise Coalition(SEC), Social Enterprise London(SEL)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 SEC는 전국적인 중간지원기관으로 엠브렐러조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SEL은 런던을 중심으로 중간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이며, 조사연구기능과 정책제언기능도 수행한다.
- 이탈리아는 Legacoop, Social Coin이 있다. Legacoop는 협동조합형태의 전국적 단체이다. Social Coin은 컨소시엄 형식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모여 형성된 단체이다.
- 미국은 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oundation(REDF), Social Venture Network(SVN), Venture Philanthropy Partners(VPP), Ashoka 등이 있다. REDF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정량화(금전평가)하는 수법인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다. SVN은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기업인 등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단체이고, VPP는 워싱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며, Ashoka는 전세계적으로 사회적기업가를 지원하는 유명 단체이다.
- 이들 기관의 규모는 대부분 10-20명 정도의 규모이고, 전 세계적인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Ashoka가 가장 크며, 미국에만 50명 정도가 일하고 있다.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표 5> 외국의 중간지원기관 사례 개요

구 분		특 징	활동개요	수입구조
영국	Social Enterprise Coalition (SE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지원 추진 단체 ·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엄브렐라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홍보(사회적기업에 관한 마니페스트 작성지원 등) · 회원끼리 교류기회 마련 · 전문가와의 연대 추진 · 보급 개발 활동 · 조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70만파운드 (2007년도) · 회원비, 정부 위탁수입
	Social Enterprise London (S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던의 사회적기업 지원 조직 · 고도의 연구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활동 정보 제공이나 이벤트의 개최 · 인재육성 · 사회적기업에 관한 저널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76만파운드 (2005년도) · 런던위원회 지원 등
이탈리아	legaco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의 연합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협동조합의 감사, 이사 · 국가적 조직에 대한 프로모션 활동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보조금 없음 · 독자적인 사업
	Social Co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조합이 컨소시엄 방식으로 설립한 중간 지원 기관 · 영업창구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 등을 통해 영업활동 전개(협동조합에 중개), 자체사업도 진행 · 은행이나 정부와의 중개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개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컨소시엄(9,000만유로)
미국	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oundation (RE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샌프란시스코를 거점으로 하는 중간지원 기관 · 주로 취업지원계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등 지원 활동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예산 300만달러 · 3분의 2가 타재단, 개인 지원
	Social Venture Network (SV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샌프란시스코를 거점으로 하는 중간지원 기관 ·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교류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콘테스트 개최 · 전문가와 의견교환 	-
	Venture Philanthropy Partners (V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싱턴을 거점으로 하는 중간지원기관 · 자금제공을 배경으로 한 컨설팅을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싱턴 DC근교의 어린이교육 활동을 지원 · 매니지먼트 지원이나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 규모는 2007년에 3000만 달러 · 3명의 창설자나 지인 서포트
	Ashok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싱턴을 거점으로 하는 중간 지원 기관 · 사회적기업가 육성 · 글로벌 지원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사회적기업에 대해, 생활비, 서비스 지원 · 지원은 국가의 사정에 맞추어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1500만 달러 · 60%가 개인, 나머지가 조직 자금 · 정부보조 없음 · 자금 제공원은 30%가 서유럽, 나머지는 미국

* 자료 : 經濟産業省, 2008, 地域活性化要因実態調査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に関する調査) 참조 재정리

3) 활동개요

- SEL의 활동 특징은 홍보, 보급계발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CIC(커뮤니티 이익 회사)의 제도 도입도 추진하였다.
- SEC는 정책제언, 조사연구사업 외에 사회적기업에 관한 저널 발행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Social Coin은 회원인 각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해서 다양한 영업활동이나 정부와의 중개역 등을 담당하고 있다.
- REDF는 사회적 약자의 실업해소를 향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SVN은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콘테스트나 다양한 교류이벤트를 개최하고, VPP는 어린이 교육 단체를 대상으로 자금 제공 및 컨설팅 활동 등을 실시하고, Ashoka는 사회적기업가 육성, 여성 사회적기업가 활동이나 사업전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4) 비즈니스 구조

- 수입구조는 기관에 따라 다양하다. SEC는 회비나 정부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SEL은 런던 위원회로부터 지원받는다.
- Legacoop는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고 회원인 협동조합 회비로 유지되고, Social Coin은 각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미국은 이어나 개인, 재단 등으로부터의 기부를 받아 유지되는 구조이다.
- 이들 선진 사례를 통해 중간지원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유형1은 지원사업 외에 자체사업 등을 통해 수입을 확보하는 형태이다. 주요 활동은 민간기업을 위한 사업의 전개(영상콘텐츠 제작 등) 등이다.
- 유형2는 행정에게 위탁받은 지원사업을 통해 CB에게 교육, 정보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을 받는 구조이다. 주요 활동은 NGO 등을 위한 직업소개사업, 지역 인재의 매칭사업, 인재육성 교육 등의 위탁사업과 기부나 보조금을 받거나 인재를 제3자(외부)로부터 확보하여 인재부족 단체에게 제공하는 것 등이다.
- 유형3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CB로부터 받는 구조이다. 하나의 CB에서 받기 보다는 여러 CB사업자의 네트워킹화된 관계 속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공동으로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가 보다 일반적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개호보험 대상 외의 고령자 개호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사업자를 네트워킹화하고, 사업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에게 서비스 대가를 받는다.

5) 네트워크

- SEC는 전국의 약1만개의 사회적기업 등과 네트워킹되어 있으며, SEL은 지방정부 등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Legacoop는 사회적 협동조합만으로도 1,700이상의 단체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Social Coin은 24개 단체가 네트워킹되어 있다.
- SVN은 많은 유럽의 단체들과 네트워킹되어 있으며, Ashoka는 여러 기업과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 국내 :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센터

1) 지역경제순환센터의 구조

- 완주군은 고산면 삼기리에 그동안 폐교로 방치된 옛 삼기초등학교를 개조해 완주 ‘지역경제순환센터’를 재단법인 형태로 개소하였다. 지역경제순환센터는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한데 모아 결속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였다.



<사진 1> 폐교를 리모델링한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 지역경제순환센터는 농촌과 지역의 당면과제를 풀어나가는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회사 육성, 커뮤니티 비즈니스, 로컬푸드, 도농순환, 공감문화 등 5개의 지원조직으로 구성되어있다.
- ‘**마을회사 육성센터**’ : ‘마을회사 육성센터’는 현재 완주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마을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파워빌리지, 두레 농장 등 군(郡)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온 70여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주민 주도의 자립적 마을회사로 육성·지원하여 향우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자립형 마을 공동체 회사 100개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기 위해 마을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일명 ‘마을 호민관(好民官)’과 마을 닥터, 마을 협력단, 공동체회사 보육센터 등을 관리하거나 운영한다.
-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는 구도심재창조, 재래시장 활성화, 자원재활용 사업, 대안교육모델개발, 공동체 일자리 등 농촌지역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비즈니스모델을 발굴·지원하며 지역 현안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한다.

- ‘로컬푸드지원센터’ : ‘로컬푸드지원센터’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밥상 연대를 총괄하는 곳으로 농민장터, 학교밥상사업, 기관단체급식 등을 추진한다. 얼굴 있는 먹거리(농산물)를 생산해 기관·단체와 학교, 기업 등에 납품하는 건강밥상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완주군 농정의 핵심시책 중의 하나이다. 군은 이를 위해 완주 로컬푸드 영농법인 ‘건강한 밥상’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 ‘도농순환센터’ : 도시와 농촌의 인적, 물적교류 활성화하는 ‘도농순환센터’는 귀농귀향과 도농교류사업을 맡는다. 도농순환센터는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귀농·귀촌 인력을 유치하고, 공동체 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농교류를 지원한다.
 - ‘공감문화센터’ : ‘공감문화센터’ 농촌의 전통문화 보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서비스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영화관람, 결혼식, 칠순잔치 등 문화 서비스 사업도 펼친다. 이밖에도 공감문화센터는 지역 주민에게 문화서비스를 하고 사장되어 가는 농촌문화 자원을 발굴해 상품화하는 역할을 한다.
- 완주군은 지역경제 순환센터 개관에 이어 이들 민·관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만간 개편될 행정조직에 전국 최초로 ‘농촌활력과’를 신설하고 순환센터와 같은 5개 담당계를 설치해 정책통합과 지원통합, 민관협력 등 행정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2)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센터

(1) 주요기능

-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센터의 주요 목표는 주체의 양성, 사업지원, 자원 발굴 및 관리, 지역커뮤니티 지원이다.

<표 6>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센터의 기능

구 분	주요 기능
인재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대상/형태/내용/분야별 교육커리큘럼 제공 • 기존 학습기관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 과정운영 • CB의 보급/계발/전문노하우의 제공
CB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축 • 장소 및 비품대여, 사무실, 회의실, 정보송수신
CB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자금, 펀드, 융자 등) • 경영지원(상당, 컨설팅, 회계, 평가) • 네트워크지원(매칭, 업무제휴, 활동평가, 교류회)
CB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자원발굴 및 사업화 • CB모델구축 및 사례연구 • CB육성방안 연구
커뮤니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지역활성화 사업 지원 • 커뮤니티 기반강화사업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정책 및 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정책개발 및 기존정책과의 연계방안 마련 • 각종 지원제도 개발

- 주체의 양성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수행할 주체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인적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며, 사업지원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
- 자원 발굴 및 관리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자원발굴과 사업화 및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며 지역커뮤니티 지원은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지원, 보조하는 사업수행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센터(일명 자원순환센터)는 인재육성, CB플랫폼, CB사업지원, CB조사연구, 커뮤니티지원, 정책 및 제도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조직

-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위탁’ 경영방식과 최소한의 규모로 출범하였으나 향후 조직 및 인원을 보강하고 최종적으로는 ‘민간기구’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림 2>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센터의 조직

(3) 운영형태

- 관 주도의 경우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나 사업의 경직성과 성과위주의 사업으로 지속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순수 민간주도의 경우 사업의 유연성 확보와 사업방향의 일관성 및 지속성 확보가 가능하나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이 둘의 중간형태인 민관협력형(위탁형)으로 민간재단을 설립 후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위탁 운영되고 있다. 민관협력형은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업의 유연성 및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민관의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수 있으나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이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민관협력의 성공적 예라고 할 수 있다.

관주도	예산의 안정적 확보 가능	사업의 경직성 성과위주의 사업 지속성 확보의 어려움
민관협력형 (위탁형)	예산의 안정적 확보 가능 사업의 유연성 확보 사업의 지속성 확보 가능	민관의 이해관계 충돌
민간주도	사업의 유연성 확보 사업방향의 일관성 및 지 속성 확보 가능	예산확보의 어려움

민간재단을 설립 후
민간경상보조 형태의 위탁운영

<그림 3>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센터의 운영형태

IV.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정부정책과 선진사례, 설문조사³⁾를 바탕으로 충남도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의 역할과 설립방안, 향후 운영방안, 각 주체들의 역할 등에 대해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요역할

-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충남도에도 중간지원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1%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3) 본 조사는 지난 9월 17일(금)에 충청남도가 '충남형 사회적기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워크숍 참석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후 미리 준비된 설문지를 배포한 후 조사한 결과이다. 워크숍 대상자는 과거에 각종 일자리사업이나 사회적기업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한 사람들이다.

<표 7>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 필요성

구분	매우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 불필요
비중(%)	35.7	46.4	10.7	2.4	4.8

- 설립될 중간지원기관은 CB를 위한 지원사업과 도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할 것이다. CB를 위한 사업은 필요와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루어지는 단발적 지원사업과 운영지원, 자금조달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업들은 사회적기업 초기단계에는 수요자와 후원자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발전의 토대를 갖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발신, 교류촉진, 조사 및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전략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중간지원기구(intermediary)

- 실제 소규모로 영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커뮤니티 비즈니스) 설립 희망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에서부터 인가,登記, 자금조달, 운영까지 각 단계별로 전문가를 동원하여 지원하는 주는 기관임
- 지역에 존재하는 행정(지자체), 기업, 상점, 금융기관, 사회적기업(커뮤니티 비즈니스), 대학연구기관, 의료기관, 각 분야 전문가, 자원봉사자들을 한데 묶어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체제를 만들고, 개별 활동의 특징을 살리면서 여러 정보를 일원화하고 상호활동을 효율화시킴
- 지역사정에 따라 중간지원기구는 주민의 중심이 되는 경우, 행정이 중심이 되는 경우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는 기구 등 그 형태가 다를 수 있음

- 중간지원기관이 담당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자금조달 지원과 사업전반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 판로개척 등의 코디네이터 기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순위로는 기업체 운영과 관련된 재무, 회계, 법률 등의 전문경영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표 8>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의 기능과 역할

지원사업	주요 내용	비중(%)	
		1순위	2순위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전반에 관한 전문적 컨설팅, 판로개척 등 소개·알선(허브 기능) 등	25.0	7.2
상담 창구	기업활동과 사회적기업 인증 등에 관한 다양한 상담 서비스	8.3	4.8
기업 지원	법인설립 지원(법인격 취득, 정관작성 등) 신규 사업아이템 발굴 및 (공모)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	8.3	9.6
운영(경영) 지원	경리·세무·재무·회계·법률 등 지원(서류 작성 등) 홈 페이지 작성 지원 등	13.1	25.3
사업 전개 지원	영업 마케팅 지원, 경험에 근거한 경영노하우 지원 언론 홍보(PR 지원) 등	9.5	12.0
자금 조달 지원	설립·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기부·보조금등 획득 지원 기업자금 융자·조성, 금융기관 소개 등	26.2	16.9
시설·비품 제공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각종 시설지원 등	7.1	9.6
인재육성 지원	사업추진, 영업활동, 사회적기업에 대한 강좌·교육 개최 등	1.2	4.8
정보 발신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 관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소식, 제품정보 제공 등	0.0	1.2
교류 촉진	사회적기업 관련자(행정, 기업, 주민, 기업가 등)와의 다양한 교류 촉진 소비자, 후원기업 등과의 교류 촉진	1.2	8.4
조사연구, 정책개발	사회적기업에 관한 기초조사·연구, 평가·표창 등	0.0	0.0

* 조사항목은 선진사례를 통해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을 정리한 것임

2. 설립방안

- 중간지원기관의 설립방법은 지방정부인 충남도에 두거나 일선 시·군에 두는 방법과 시민단체에 두는 방법, 중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나 연구기관 등에 두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시·군에 설치하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어, 자기 지역에서 적시적·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의 설립형태

구 분	비중(%)	
	1순위	2순위
충청남도	20.2	27.1
시·군	57.1	20.0
충남도 산하 기관(충남발전연구원, 여성정책개발원 등)	11.9	20.0
대학(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충청권 지원기관 등)	4.8	14.3
시민단체(사회적기업 관련)	6.0	17.1
기타	0.0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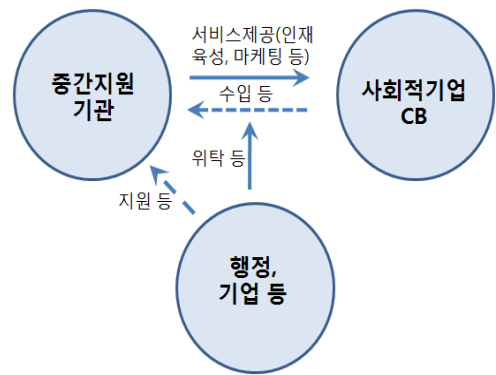
- 이러한 의견을 참조하여 중간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설정하고, 현재 충남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3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 첫째,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즉 기존의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중인 충청권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존 기관에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직간접 지원을 하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호서대 산학협력단의 경우 기존 업무의 과중,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절차 등의 위탁업무 집중, 교수와 연구원들의 제한적 활용이 단점이 될 수 있다.
- 둘째, 충청남도 산하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충남여성개발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기존 기관내에 별도조직(센터 조직 등) 운영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 기존 연구기관을 활용할 경우 충남형 사회적기업이 복지, 농산어촌 및 지역개발분야, 관광분야, 환경분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종합성을 확보하고,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의욕, 능력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이론과 실무를 연계할 수 있는 각종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셋째, 전문 시민단체에 위탁하는 방법이다. 기존 시민단체 중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활동(교육, 컨설팅, 홍보 등)을 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한 후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과 사업 등을 위탁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할 경우 선정된 시민단체를 향후 중간지원기관 형태의 CB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충남지역 내에는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시민단체가 많지 않고, 자체적인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 이상의 여러 방안 중 충남도는 전술한 중간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 향후 충남도의 정책 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단기, 중·장기 전략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3. 운영방안(비즈니스 구조)

-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기관은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행정의 위탁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구조에서 출발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중간지원기관을 하나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중간지원기관의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의 위탁기능과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및 CB 정책과 연계하여 선정된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일부를 중간지원기관에 배정하여 홍보, 교육, 경영컨설팅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해당 개별 사회적기업은 홍보, 교육 등이 필요하지만 체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지원 기관에서 중점적·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중간지원기관은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프로보노 운동과 연계하고 지역 사회의 많은 사람과 기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지역의 특성과 해당 사회적기업의 성격에 따라 폭넓게 전개되어야 한다.



<그림 4> 중간지원기관의 비즈니스 구조

<표 10> 네트워크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기관(예)

1. 행정	2. 금융기관	3. NGO	4. 조성 재단 등 자금 중개 기관
5. 보도 기관(신문사, 방송사 등)	6. 중소기업 진단사		
7. 공인회계사	8. 세무사	9. 변호사	
10. 중소기업 지원기관	11. 상공회의소	12. 대학 등의 교육기관	
13. 사회복지협의회	14. 자치회·마을조직	15. CB 사업자	
16. 지역 전문가(코디네이터)	17. 지역주민 등		

- 특히, 초기단계에 있는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상담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회적기업 대상기업들은 영세하고, 전문적 경영지식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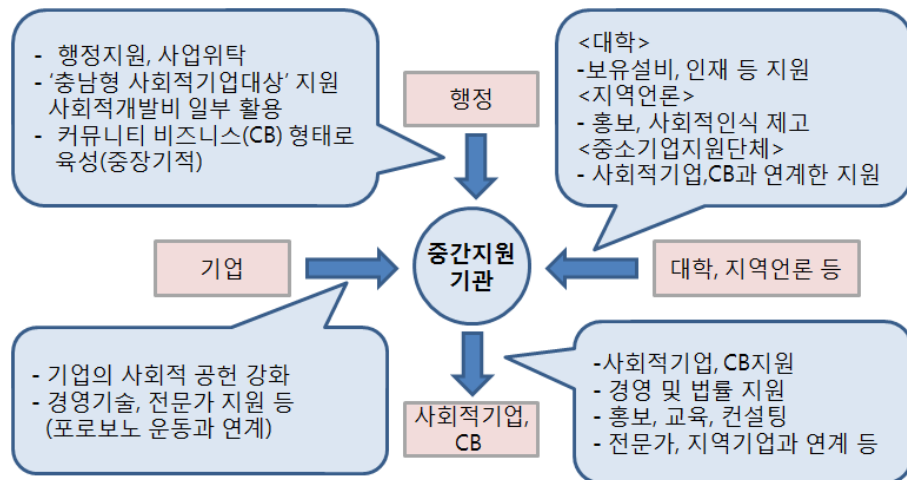
<표 11> 상담이 필요한 주요 분야(예)

1. 조직구성(법인설립 등) 관련	2.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3. 경리·세무·재무·회계·법률 등 관련	4. 자금(사업비 등) 조달 방법 관련
5. 전문인력 확보·육성 관련	6. 조직내부의 매니지먼트 관련
7. 네트워크 형성관련(홍보, 타조직과 연계 등)	8. 시장조사·판로개척, 마케팅 관련

- 그리고 ‘충남형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기관 역시 생명력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중간지원기관이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의 가교와 리더 역할을 하도록 중간지원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4. 주체들의 역할분담

- 중간지원기관이 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조가 이를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행정은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기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 즉, 사회적기업 관련 홍보, 교육, 기초조사, 컨설팅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경영의 안전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림 5> 중간지원조직 지원 사회구조 만들기 구상(예)

- 둘째, 기업은 사업 및 경영 노하우를 지닌 인재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으로 경영능력을 이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주요한 수요자이며, 사회적기업의 후원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셋째, 대학이나 언론기관 등은 각각의 특징을 살린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학은 연구설비나 인력 등에 의한 지원 등이 필요하며, 언론기관은 언론매체를 통해 중간지원기관의 다양한 활동을 홍보하는 것이다. 홍보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중간지원기관의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다.
 -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는 이미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해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원들이 사회적기업으로 확대·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체적인 것은 중간지원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 넷째, 사회적기업과 CB사업자는 우선 중간지원기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발적인 활용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CB사업자끼리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상호 우선구매 등의 노력을 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 충남도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의 역할과 설립방안, 향후 운영방안 및 각 주체들의 역할 등에 대해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중간지원기관은 자금조달과 사업전반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 판로개척 등의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기업체 운영과 관련된 재무, 회계, 법률 등의 전문경영지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중간지원기관의 설립방법은 기존조직을 활용하는 방법, 지방정부인 충남도나 일선 시·군에 두는 방법, 시민단체에 두는 방법, 중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나 연구기관 등에 두는 방법 등 다양하나, 중간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 향후 충남도의 정책 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단기, 중·장기 전략으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 운영을 위해서 초기에는 행정의 위탁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간지원기관을 하나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간지원기관은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영세하고, 전문적 경영지식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아울러 중간지원기관이 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조가 이를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 이를 위해 행정은 중간지원기관에 대해 사회적기업 관련 홍보, 교육, 기초 조사, 컨설팅 등의 기초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민간 기업은 사업 및 경영 노하우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능력을 제고시키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주요한 수요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대학은 연구설비나 우수인력 등을 제공하고 매스컴은 매체를 통해 중간지원기관의 다양한 활동을 홍보한다. 홍보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중간지원기관의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미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해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원들이 사회적기업으로 확대·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과 CB사업자는 중간지원기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발적인 활용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CB사업자끼리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상호 우선구매 등의 노력을 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단순히 사회적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구조에서 지역의 사회적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 왜냐하면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두 지역경제순환, 더 나아가 지역순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이 지역의 문제를 효과적·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두 커뮤니티 베이스의 지역만들기, 마을만들기와 연계될 때 비로써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고, 그 효과가 지역민에게 직접 전달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역의 자산, 마을, 사람 등을 기반으로 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 폭넓은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 충청남도, 2010.6,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충청남도
- 김창환, 2010.10.12,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완주군 적용사례
- 임준홍·김양중·송두범, 2010.9, 성공적인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제언, 월간 충남경제
- 이용재·임준홍, 2009.12, 충남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임준홍, 2009.6,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충남리포트 제19호
- 홍석빈, 2009.5.6,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원
- 노동부, 2008.11,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 지경배, 2010.9,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정책브리프 제80호, 강원발전연구원, p.9
- 関東経済産業局, 2009,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中間支援機関のビジネスモデルに関する調査報告書
- 経済産業省, 2008, 「地域活性化要因実態調査(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に関する調査)」

임 준 용, jhim@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공간계획연구부 책임연구원

Tel. 041-840-1166

충남리포트 리스트

구분	보고서 제목	집필자	발행일
2008-01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	송두범	2008. 1.21
2008-02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향후 발전 과제	강영주	2008. 2.22
2008-0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이충훈·권영현	2008. 3.19
2008-04	국가적 도시재생연구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조봉운·송두범	2008. 5. 2
2008-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내용 및 성공적 구축과제	송두범·강영주	2008. 5.27
2008-06	방위산업의 현황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이관률	2008. 6.19
2008-07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신동호·강영주	2008. 7.30
2008-08	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분석	백운성	2008. 8.29
2008-09	충남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시·군별 균형발전 평가	원종문·강영주	2008. 9.30
2008-10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발표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	백운성	2008.10.30
2008-1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	오용준	2008.11.28
2008-12	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	정옥식	2008.12.30
2009-01	충남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강영주	2009. 1.30
2009-02	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연계 발전전략	한상욱	2009. 2.24
2009-03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정종관	2009. 3.11
2009-04	바람직한 금강 하구역 개선을 위한 부분 해수유통 방안	전승수·한상욱	2009. 3.18
2009-05	굴포운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	오석민·한상욱	2009. 4.24
2009-06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	이인배	2009. 5. 8
2009-07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임준홍	2009. 6.29
2009-08	태안군 녹색성장이 육성을 위한 환경생태관광의 여건과 발전전략	이인배	2009. 7.23
2009-09	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	최인호	2009. 8. 6
2009-10	로컬푸드의 실태 및 충남의 실천과제	윤병선·유학열	2009. 9. 7
2009-11	충남 전통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전략	임준홍·이상준외	2009. 9.30
2009-12	지역 통계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	조한석·백운성	2009.10.30
2009-13	충남 농수산물 수출실태와 활성화 전략	임형빈·유학열	2009.11. 9
2009-1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김용웅	2009.11.18
2009-15	충남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재완·이관률	2009.12.11
2009-16	대전·충남의 금융산업과 지역발전	류덕위·김양중	2009.12.31
2010-01	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 전략	임준홍·조수희외	2010. 1.29
2010-02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2.24
2010-03	충남의 지역경제 개관 -사회계정행렬(SAM)을 통한 분석	임재영	2010. 3.10
2010-04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 II	이용재·임준홍	2010. 3.18
2010-0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II	이충훈·권영현	2010. 4. 5
2010-06	아·태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충남의 정책적 시사점	최병학	2010. 4.30
2010-07	중국 시장에 대한 충남의 수출경쟁력 분석	김양중	2010. 5.10
2010-08	충남 도시농촌 교류정책의 현황 및 과제	송두범	2010. 5.27
2010-09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6. 3
2010-10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충남 연안역에 미치는 영향	장동호·윤정미	2010. 6.21
2010-11	충남 귀농·귀촌 실태 분석과 과제	유학열	2010. 8. 9
2010-12	충남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신동호	2010. 8.16
2010-13	충남 지역경제 10년과 과제(1998년-2007년)	임재영	2010. 8.19
2010-14	기후변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정책	이인희	2010.10. 6
2010-15	사람중심,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	조명래·임준홍외	2010.10.29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